

<2013년 1월 28일 월요일 새벽 잠언>

* 오늘은 ‘투자과 성공’에 대한 잠언을 전해 주겠습니다.

1. 인간이 투자하면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할 수 있다.
2. 시간 투자, 돈 투자, 노력 투자, 열심 투자, 사랑 투자를 하면 무(無)에서 유(有)의 표적이 일어난다.
3. 말씀 투자, 기도 투자를 하면 자기 육적 생활과 영적 생활에서 즉시 표적이 일어나고, 생명의 표적이 일어난다.
4. 메마른 땅도 투자하면 수영장도 만들고, 폭포수도 만들고, 호수도 만든다. 투자하면 표적이 일어난다. 이와 같이 기도하면서 시간을 투자하면 투자하는 곳에 즉시 기적이 일어난다.
5. 새벽에도 ‘시간 투자하기’ 다.
6. 낮에도 ‘시간과 모든 것을 투자하기’ 다.
7. 봄과 여름에 시간과 노력과 정성 등 모든 것을 투자한 농부가 가을에 많이 가둔다.
8.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하여 서로 가져가려고 하지만, 큰 투자자들이 조종하니 망하는 자들이 90%다.
9. ‘주식 투자’는 게임이며, 투기이며, 돈 장사다.

10. 온전한 투자를 하여라.
11. 성자 주를 향한 투자가 온전한 투자다. 성자에게 투자한 것은 망하지 않고 다 거둬들인다.
12. 투자 종목대로 거둬들인다.
13. 투자하고 관리하기다. 기르기다. 잡초를 뽑아 주고 췌기다. 가꾸기다.
14. 농부는 계절마다 투자하고, 계절마다 거둬들인다.
15. 성자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여라.” 하며, ‘투자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16. 성자 주님은 “열심을 내어 회개하여라.” 하며,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데 투자하라고 하셨다.
17. 악평 투자, 시기 투자, 원망 투자는 스스로 망하게 한다.
18. ‘긍정적 투자’는 옳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혜이며, 결실을 얻게 되는 투자다.
19. <구원>을 위한 인생 일생 투자다.
20. <영과 혼의 변화>를 위한 투자다.
21. <휴거>를 위해 전능하신 성자에게 절대적 투자다.

22. 많이 투자한 자가 더 많이 얻듯이, 사랑도 그러하다.

* ‘사랑’도 많이 투자한 자가 더 많이 얻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을 투자해야 사랑을 더 많이 느끼고 더 얻는지 말씀하겠습니다. 핵심은 ‘먼저 사랑’입니다.

23. ‘사랑’은 받는 자보다 먼저 한 자가 사랑을 훨씬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얻는다.

24. 사람들은 서로 먼저 사랑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흔히 “왜 늘 나만 먼저 사랑해 줘야 되냐?” 라고 말한다. / 그러나 ‘사랑’은 먼저 해 주는 자가 사랑을 훨씬 더 많이 느끼고, 더 기쁘고, 더 즐겁다. 짝사랑하는 자들을 보아라. 얼마나 좋아서 미쳐서 뛰느냐. 먼저 사랑하면 그와 같다. 성자를 먼저 사랑하여라.

25. 반드시 많은 사랑을 얻으려면 ‘먼저 사랑’이다. 그러면 자기 자체 내에서 가동되는 사랑은 70개를 얻고, 상대를 통해서 오는 사랑은 30개를 얻는다. / 상대가 먼저 사랑해서 사랑을 얻으면, 자기 자체 내에서 가동되는 사랑은 30개를 얻고, 상대를 통해서 오는 사랑도 30개를 얻는다. 고로 사랑을 적게 느낀다.

26.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왜 나만 먼저 투자하고, 너는 받기만 원하냐?” 라고 한다.

27. 남녀도 서로 사랑을 받기만 하려 한다. 그러나 먼저 사랑하는 자는 자기 자체로도 사랑의 기쁨을 얻고, 상대를 통해서도 사랑의 기쁨을 얻기 때문에 사랑을 강하게 느끼고 많이 얻게 된다.

28. 사랑도, 그 어떤 것도 먼저 생각하고 행하는 자가 → 열정이 높고, 차원이 높고, 마음·정신·생각으로 먼저 사랑을 느끼고, 혼체도 먼저 사랑을 느끼고, 그에 대한 기쁨과 희망을 얻는다. 그러다가 상대와 함께 뜻을 이루면, 상대로부터 오는 것도 얻게 된다.
29. 생명을 구하는 사랑을 보자. → ①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먼저 기도한다. 그때 성자와 교통하며 기쁨과 희망을 얻게 된다. ② 또한 한 생명을 놓고 그를 살리려고 간구하니, 그때부터 생명 사랑을 느끼고 정신적으로 사랑을 느끼고 받는다. / 자기가 이런 상태에 있어도 상대는 전혀 모른다. 먼저 생명을 사랑하는 자만 사랑을 느끼고 받는다. / ③ 그다음에 그 생명을 위해 말씀 투자, 생명 투자를 한다. 그제야 상대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좋아서 따라온다. 그제야 상대로부터 조금씩 사랑이 오기 시작한다. / 이와 같이 사랑이든, 그 어떤 것이든 먼저 하는 쪽이 더 많은 사랑을 얻는다.
30. 성자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자기가 먼저 주를 사랑해야 사랑을 더 얻게 되고, 성자 주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셔도 그 사랑을 제대로 느끼고 받게 된다.
31. 먼저 사랑하는 자는 생각과 몸에 이미 사랑이 전초가 된 자다. 고로 성자가 사랑해 주셔도 그 사랑을 다 받게 된다.
32. “왜 나는 항상 먼저 사랑해야 되지?” 하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사랑을 많이 받으려면 먼저 사랑하여라. 이는 마치 길을 더 많이 가려면, 먼저 출발하는 것과 같다.
33. 먼저 사랑해 주는 자가 사랑을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받는다.

34. 구걸하는 자에게 먼저 사랑을 주었다. 그때 사랑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니, 더 기쁘고 더 많은 사랑을 느끼는 것이다.
35. 전능하신 삼위일체는 항상 사랑의 주인이 되어 인간을 먼저 사랑해주신다. 고로 항상 더 기뻐하시고, 더 사랑을 많이 느끼시고 더 많이 얻으신다.
36. 누구든지 전능하신 삼위일체를 먼저 더 사랑하고 행하면, 그는 ‘주는 사랑’으로 인해 그 기쁨과 희망과 사랑을 다 받게 된다.

<2013년 1월 29일 화요일 새벽 잠언>

*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투자과 성공’에 대한 잠언을 전해 주겠습니다.

37. ‘사랑’도 모래사막의 샘물과 같아서, 떠서 안 주면 흘러가 버리고 만다.

38. 사랑을 안 주고 간수한다고 해서, 사랑이 산같이 쌓이지 않고 금고의 돈같이 쌓이지 않는다. 사랑은 안 주면 그냥 소모된다.

39. 자기가 상대를 사랑하려 해도 그 상대가 안 받으면, 다른 자에게 사랑을 주어 사랑을 소모시키지 말아야 된다. / 성자 주님은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 유대 종교인들에게 사랑을 주셨다. 그러나 그들이 그 사랑을 안 받으니, 기다리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이방인들에게 주어 사랑을 받는 자들을 데리고 뜻을 펴 나가셨다.

40. 이 시대도 이미 34년 전부터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시대 보낸 자를 통해서 기성에게 이 시대급 구원의 사랑과 휴거의 사랑을 주셨다. 그러나 사랑을 줘도 그들이 안 받으니, 다른 젊은이들에게 주셨다. 그 젊은이들이 그 복음의 사랑을 받고 성장하여 시대 주인공들이 되었다.

41. 성자 주님이 사랑을 주셔도 미련하여 그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은, 후에 깨닫고 때가 지난 다음에 따라온다.

42. 성자 주님은 이 시대에 아무도 못 하는 진실한 사랑을 하는 자를 찾으셨다. 그리고 그를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인도하여 성자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다. 기도, 말씀, 시대, 때, 창조 목적, 사랑, 재림, 휴거

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다.

43. 먼저 사랑을 깨닫고 먼저 사랑하여라. 꾸준히 끝까지 하여라. 그러면 사랑의 주인공이 된다.
44. 사냥을 갔다가도 못 잡을 때가 있다. 그때는 사냥 기술을 배울 수 있었던 훈련이었다고 생각하여라. / 진실한 사랑을 투자했는데, 사랑을 얻지 못했느냐. 그때는 진실한 사랑을 배우는 훈련이었다고 생각하며, 더 차원이 높고 고상한 사랑을 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과 성자 주님을 중심한 사랑이라야 사랑을 얻어도 영원한 참된 사랑이다.
45. 전능자의 법에 어긋난 사랑은 사랑을 얻어도 그 희망이 뜬구름과 같고, 오히려 해가 된다.
46. 영원하신 전능자와 함께 하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며, 순리적 사랑이다.
47.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와 함께 행하는 것이 다 사랑에 해당된다. 기도하는 것이 사랑이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극적 사랑이고, 생명을 관리해 주며 하나님과 성자의 말씀을 성령으로 전해 주는 것이 사랑이고, 남녀가 사랑하는 것같이 삼위일체와 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48. 성자의 사랑은 수십만 가지다. 성자와 일체 되어 그 일을 하는 것이 모두 삼위일체로부터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것이다.
49. 돈 버는 것이 한 가지인 줄로만 알면, 그 한 가지 일만 한다. 돈 버는 것이 수십만 가지이듯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사랑은 수십

만 가지다. 사람끼리의 사랑도 수십만 가지다.

50. 세례요한은 외치는 소리가 컸고, 나사렛 예수님은 외치는 소리가 작았다.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오실 자를 증거하며 외쳐야 하니 소리가 커야 했고, 예수님은 이미 온 자신을 이야기하니 외치는 소리가 작아도 됐다.
51. 증거하며 외치는 자는 소리가 커야 했고, 주는 와서 말하니 소리가 작아도 됐다.
52. 제일 큰 존재자이면서 제일 소리가 작은 존재자는 하나님이다. 성령님이다. 성자 주님이다. 소리 없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신다.
53. 사랑을 주는 자는 사랑을 받는 자에 처지에 따라서 준다. 성자 주님도 그러하시다.
54. 사랑은 기도할 때만, 찬양할 때만, 말씀을 들을 때만, 말씀을 전할 때만, 감사할 때만, 사랑할 때만 오는 것이 아니다. 길을 갈 때도, 어떤 여건이 됐을 때도 순간순간 온다.
55. 옳은 말을 하면서 주님께 이 말이 맞느냐고 하면, 맞다고 하면서 사랑이 온다.
56. 옷을 잘 입었는데도 사랑을 못 받는 자가 있다. 이는 사랑을 한 가지로만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잠언은 다음 잠언을 들어야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57. 사람의 옷은 육적으로 보면 두 가지다. 첫째, 인물 옷이다. 둘째, 입는 겉옷이다.
58. 사람은 저마다 수십 가지 종류의 옷을 입고 다닌다. 명예의 옷, 권세의 옷, 인물의 옷, 학벌의 옷, 지식의 옷, 지혜의 옷 등 저마다 가지고 있는 실력의 옷이다.
59.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개성의 옷과 멋이다.
60. 최고로 비싸고, 위대하고, 귀하고,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옷을 보아라! 사람이 만들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것으로 이는 성자 주가 주신 ‘시대 사명의 옷’ 이다.
61. 시간을 투자하여라. 무(無)에서 창조의 표적이 일어난다.
62. 기도에 투자하여라. 표적이 일어난다.
63. 성자의 사랑에 투자하여라. 휴거의 표적이 일어난다.
64. 사랑에 잘못 투자하면 인생 망한다.
65.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투자한 것은 그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고 영원까지 간다.
66. 늙기 전에 인생 투자, 사랑 투자다. 사랑도, 청춘도 때 지나면 강물 같이 흘러가 버린다.

<2013년 1월 30일 수요일 새벽 잠언>

* 오늘도 ‘투자과 성공’에 대한 잠언을 전해 주겠습니다.

1. 땅에서 성공하는 자는 많은데, 하늘에서 성공하는 자는 적다.
2. 땅에서 성공하면 <누리는 기간>이 인생 한때요, 길면 두 때다.
3. 하늘에서 성공하면 <누리는 기간>이 인간의 시간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영원한 기간이다.
4. 땅에서 성공하는 세계는 너무 넓어서 성공할 것이 많다.
5. 육신이 땅에서 성공해 왔더니, 인생의 해가 지고 있다.
6. 육신이 땅에서 영적인 것에 투자하여 하늘의 성공을 해 왔더니, 그 공적이 모두 하늘나라에 쌓였다. 육신이 죽고 그 영혼이 천국에 가니, 찬란한 영광이 시작된다.
7. 육신이 땅에서 영적인 것에 투자하여 하늘의 성공을 해 왔더니, 땅에서 성공한 것까지 모두 천국에 가 있어 그 영혼이 영원히 누린다.
8. 땅에서 성공한 자는 땅만 돌고 돌다가 끝난다.
9. 땅의 성공, 땅의 명예, 땅의 권세, 땅의 영광은 인생의 해가 기울면 모두 짐이 된다. 고로 모두 벗어 놓고 그나마 가쁜 숨을 쉬게 된다.
10. 하늘의 성공, 하늘의 명예, 하늘의 권세, 하늘의 영광은 인생이 죽기

까지 모두 안고 누리다가 비행기를 타고 가지고 가듯 하늘나라까지 가지고 가서 누린다.

11. 땅의 성공, 땅의 명예, 땅의 권세, 땅의 영광은 육신과 함께 사라진다. 그러나 하늘의 성공, 하늘의 명예, 하늘의 권세, 하늘의 영광은 영이 혼과 함께 하늘나라로 가지고 가서 영원히 누린다.
12. 땅의 성공과 명예와 영광의 끝에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하나 있다. 죽은 시체 하나 남는다.
13. 세상에서 지구 세상 전체를 자기 것으로 사서 누렸어도 그 결과는... 세상에서 거지로 살면서 천국의 한 평 땅을 얻고 산 것만 못하다.
14. 세상을 다 얻고 사는 자나, 못 얻고 사는 자나 겨우 자기 인생 100년 살고 간다.
15. 육신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늘의 것을 얻지 못한 자는 그 영혼이 거지가 되어 사망의 영의 세계로 간다.
16. 이 지구 세상은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 장소다. 고로 육신으로 살더라도 영을 중심하여 살아야 된다.
17. 육신은 세상에서 잠깐 산다. 그러나 육신이 행한 대로 자기 영이 만들어져서, 결국 영이 만들어진 대로 그에 해당되는 영계에 가서 살게 된다. 고로 영의 세계에 있는 영들은 겉 세상인 지구를 볼 때 ‘결국 저기서 살다가 이곳으로 올 텐데...’ 하고 겹눈질하며 본다.
18. 영의 세계의 영들은 육의 세계를 볼 때, 자기와는 상관없는 세계이

므로 관심 없이 살아간다.

19. 육의 세계에서 육을 가지고 살다가, 육신이 죽은 후에 영의 세계로 간 영들은... 육의 세계는 다시는 살아서 돌아갈 수 없는 세계임을 알고, 육의 세계의 생각을 잊고 산다.
20. 육의 세계 사람들은 육을 가지고 사니, 영의 세계에 관심 없이 살아간다.
21. 육신이 지구 세상에서 살 때, 영의 세계에 눈을 떠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서 자기 영을 키우면, 자기 육신이 죽은 후에 그 영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영의 세계로 간다. 그렇지 않은 영들은 하나님 주권 밖의 영의 세계로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다.
22. 시간이 빠져나가는 곳을 마치 산소용접 하여 때우듯 시간이 빠져나가지 않게 해야 된다.
23. 시간이 빠져나가는 곳을 안 때우고 시간을 쓰면... 마치 바람이 빠져나가듯, 저장된 가스가 빠져나가듯, 그곳으로 시간이 다 빠져나간다.
24.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힘’이다. ‘기(氣)’다. ‘에너지’다.
25. 시간이 모자라거나 없으면, 그날은 갈 곳을 못 간다.

<2013년 1월 31일 목요일 새벽 잠언>

* 오늘은 ‘보화’에 대한 잠언을 전해 주겠습니다.

1. ‘신앙’과 ‘생활’은 별개가 아니다. 육신의 움직임 그 자체가 신앙이다.
2.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생활하는 그 생각과 삶을 밖에 나와서도 똑같이 하라는 것이다.
3. 하나님과 성자의 말씀 노선에 따라서 교회에서나 밖에 나와서나 항상 자기 생활을 똑같이 해야 된다.
4. 육신의 생활이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진 것이다.
5. 자기 육신의 행위 하나하나가 신앙생활이다.
6. 자기 육신이 행하면, 자기 마음과 생각도, 혼도, 영도 행한 것이다.
자기 육신이 못 하면, 자기 마음과 생각도, 혼도, 영도 못 한 것이다.
고로 육의 삶, 곧 ‘생활’과 ‘신앙’은 별개가 아니다.
7. 육의 행위가 죽으면 마음도, 혼도, 영도 죽는다.
8. 행위의 능력이다. 행위의 능력과 승리다.
9. 운동경기 때도 ‘마음과 정신의 결과’와 ‘육신의 행위’로 인해서 승패가 결정되지 않느냐. 신앙 세계에서도 그러하다.

10. 자기 행실을 잡아야 된다.
11. 마음이야 다 먹을 수 있다. 누가 행하여 목적지를 오르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된다.
12. 어떤 말을 듣고 감동받는 것은 1단계이고, 그것을 행하는 것은 2단계다. 그 행위에 따라서 얼마나 얻었느냐가 3단계다.
13. 마음과 정신이 얼마나 강한가, 그에 따라 얼마나 실천했는가에 따라 ‘소득’이 좌우된다.
14. 실천했어도 유익에 따라 평가한다.
15. 실천할 때, 정신일도 하여 지식·지혜·판단·전력·수단·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야 된다.
16. 생각이 보화다.
17. 좋은 생각이 좋은 보화다.
18. ‘마음’에는 수십만 가지 보화가 묻혀 있다. 캐내라!
19. 매일 보화를 캐내라! 세상 보화도 매일 캐내고, 하늘 보화도 매일 캐내라!
20. 땅에서 최고 보화는 ‘자기 자신’이다. 두 번째 보화는 ‘자기를 구원할 사랑하는 자’이며, 하늘로는 ‘전능하신 삼위일체’다.

21. 세상의 보화만 기쁨과 가치와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 묻힌 보화’가 더 가치 있다. 그것을 매일 캐내서 써라.

22. 기도를 깊이 하면, 누구든지 마음의 보화를 캐낸다.

23. 마음 세계, 정신 세계, 생각 세계의 보화는 무한하다.

<2013년 2월 1일 금요일 새벽 잠언>

*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보화’에 대한 잠언을 전해 주겠습니다.

24. 세상은 알고 보면, 보화의 세계다.

25. 만물들이 모두 보화다. 인간 보화를 찾아라.

26. 땅과 하늘의 보화는 ‘사랑’이다.

27. 성자의 사랑을 뺏기지 말고, 매일 실천하여라.

28. <성자와의 대화>는 보화다.

29. <새벽>은 보화를 깨는 황금 시간이다.

30. <시간>은 보화다. 고로 쓰기에 따라 귀한 보화가 된다.

31. <진리>는 영원한 사랑의 천국으로 가는 보화다.

32. <증거>는 큰 보화다.

33. 성령의 보화, 신령의 보화, 사랑의 보화다.

34. <자기 재능>은 보화다.

35. <실천>은 보화다.

36. <운동>은 보화다.

37. <건강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보화다.

38. <관리>는 보화다. 자기 관리와 모든 자들 관리다.

39. <생명을 구하는 것>이 보화다.

40. 자기가 보화인데 모른다.

41. 만물도 사람도 잘 쓰면, 보화다.

42. 만물도 사람도 잘못 쓰면, 보화가 보잘것없는 것이 된다.

43. <방법론>이 보화다.

44. 금반지, 금시계, 금 목걸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차고 다녀도 처음에
만 번쩍번쩍 호기심이 일어난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큰 기쁨과 이
상을 가져다 주겠느냐.

45. 정신 보화, 생각 보화, 지혜 보화는 매일 기쁨을 주고, 이상을 주며,
자기를 흥분시킨다.

46. <훈>은 보화다. 고로 훈을 발견하고 써라. <영>은 영원한 존재자로
서 보화다.

47. <말을 잘하는 것>은 큰 보화다.

48. <제스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큰 보화다.
49. <성자를 사랑하는 진실한 사랑>은 큰 보화다.
50. <관심>은 보화다.
51. 과일나무는 끝에 가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다.
<끝까지 가는 마음>이 보화다.
52. <잠언>은 보화다.
53. 한 잠언으로 한 생명이 전도되어 성자의 사랑하는 신부가 되었다.
54. 한 제자에게는 천만 원을 선물로 주고, 한 제자에게는 하나의 잠언을 선물로 주었다. 3년 후에 보니 돈을 준 자는 다 쓰고 남은 것이 없었고, 잠언을 준 자는 그 잠언으로 살아서 수역을 벌고 나에게 감사도 했다.
55. 잠언 하나를 받고 실천했더니, 1분에 천만 원을 벌었다. 잠언을 잘 읽어 보아라.
56. 내 혼체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내 고향의 산과 들로 다니면서 내가 찾는 보화가 있는지 찾아봐.” 하고 사명을 주었다. 그러니 내 혼체는 5분 만에 다 돌아다니고 내가 찾는 보화를 찾았다. 가서 가지고 오라고 하니, 자기는 혼체라서 못 가지고 오니 사람을 시키라고 했다. 그래서 제자들을 시켜서 “어느 위치에 가면 내가 찾는 보화가 있으니 가져와라. 내 혼체를 같이 보낼게.” 했다. 제자들은 그 위치에 가서 내 혼체가 찾은 보화 10여 점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월명동 박물관에 갔다 놓았다. 내 혼체에게 맞냐고 물어보니, 맞다고 했다.

57. 내가 내 혼체에게 “인간 보화를 찾자. 성자께서 택하신 자를 찾자. 대전 거리를 다니면, 성자가 택하신 자가 지나간다는데 제자들이 못 찾는다. 네가 가 봐라. 제자들도 같이 보낼게. 네가 내 제자들 중에서 합당한 자들을 그때그때 써라.” 했다. 그랬더니 내 혼체는 두 달 만에 한 사람을 찾아왔다. 알고 보니, 제자들이 안 가는 곳에 묻힌 인간 보화였다. 그 사람은 운동선수인데, 그곳에는 제자들이 없으니까 내 혼체가 그 생명을 데려오느라 애를 먹었다. 결국 그 운동선수가 가는 길에 전도 특공대를 배치했고, 그들이 그 생명을 만나서 선생에게 편지했다. 그 운동선수에게 이 사연을 이야기해 주니 신비하다고 하며 전도되었다.

58. 내 육신이 못 가니, 내 혼체가 가서 이 일 저 일 다 한다. 밤에는 꿈영계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소원도 이루어 주고 온다. 내 혼체에게 “너 정말인지, 제자들에게 물어볼게.” 하고 편지로 물어보니, 정말 선생의 혼체가 왔다 갔다고 했다.

59. <자기가 귀히 찾는 것>이 보화다.

60. 사람들은 보화를 일부만 알지, 잘 모른다. 고로 내가 가서 보화를 캐 온다.

61. 땅에 묻힌 보화도 있지만, 거리에도 눈에 보이게 보화가 있고, 산에도 들에도 보화가 있다.

62. 보아라. 보화인지 보아라.

63. 보고, 또 보고, 또 보아라.

64. 부지런해야 보화를 캐낸다.

65. 창조주가 보화를 창조했다. 고로 보화의 주인은 창조주다. 창조주께 보화를 달라고 졸라라. 그래야 주신다.

66. 희귀종 풀이나, 꽃이나, 돌이나, 나무나, 각종 것들이 다 보화다.

67. 형상에 따라, 종류에 따라 보화가 된다.

68. 사막의 모래에서도 보화를 만든다. 사막의 모래 장미 꽃 보화다.

69. 성자가 쓰시면, 보화 인생이 된다.

<2013년 2월 2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같은 동질 요소나 동질 존재가 아니면, 같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고로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고로 인간은 하나님과 통한다. 인간의 육이 하나님과 일체 되어 행하는 대로 그 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는데, 영이 변화되는 대로 하나님과 닮아 가고, 하나님과 통하게 된다.
2. 인간끼리도 남녀가 사랑하여 남녀의 유전자가 일체 되면, 같은 종인 인간을 낳아서 그 형상이 닮게 된다.
3. 육신인 남자와 여자가 결합되면, 같은 종인 ‘육신’을 탄생시킨다.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일체 되면,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낳게 된다.
4. 절대 신인 전능자와는 시대 보낸 자를 통해서 통해야 가장 빨리 통한다.
5. 성에 들어가려 할 때, 높은 성벽으로 가면 문지기가 잡는다. 문으로 통과하면 너무 쉽다.
6. 어둠 세계에서 살면서 해 뜨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들은 ‘시대 진리의 해’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7. 해가 떠서 대지를 밝히고 있어도 어둠 속에 사는 자들은 모른다.
8. 같은 세상에서 살아도 하나님과 성자를 믿고 미래를 알고 빛 가운데서 사는 자와 믿지 않고 어둠 속에서 사는 자는 다르다.

9. 현재 하나님과 예수를 믿고 사는 자들이 빛 가운데서 살고 있는지,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지, 육의 눈으로 봐서는 모른다. 빛 가운데로 나와서 사는 자들이 봐야 한다.
10. 같은 세상에서 살아도 어떤 자는 그 영이 천국 구원을 받고 살고 있고, 어떤 자는 그 영이 지옥에 속해 살고 있다. 그래도 육의 눈으로 보면 모른다. 천국 구원을 받고 사는 자들만 안다. 이와 같이 새 시대 생명권에 사는 자들만 구시대 사망권에 사는 자들을 안다. 구시대 사망권에 사는 자들은 자기들이 사망권에 있는지 전혀 모른다.
11. 집을 짓다가 못을 박는 망치가 필요한 자는 온 지역을 다니면서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집중하여 오직 망치만 찾고 다니지,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 이와 같이 성자도 구원하러 오셨으니, 오직 ‘사랑’만 찾고 다니신다. 성자를 사랑하는 자를 찾으신다. 고로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사랑만 찾고, 그 눈에는 오직 사랑만 보인다. 그러다가 누가 성자를 부르면, 순식간에 가서 그 말을 들어보신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과 행위를 지켜보신다.
12. 휴거 때는 성자를 사랑으로 찾고 두드리는 자만 찾고 다니신다.
13. 백성 가운데 보통 여자는 왕궁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궁녀 자격이 되면 왕궁에 들어갈 수 있다. / 이와 같이 인간의 영도 보통 영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을 믿고 구세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하나님과 성자를 사랑함으로 그 영이 사랑의 자격자가 되면, 성자가 오셔서 그 영을 천국에 데리고 들어가신다.
14. ‘말’이 역사가 되고, ‘행실’이 역사가 되는 자가 이 시대 성자

의 분체가 된다.

15. 온전한 말이 아니면, 그 말은 비진리라서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말을 행해도 그 영이 하늘나라 형체로 형성되지 않는다.
16. 시대에 하나님과 성자가 보낸 자는 보통 일을 하고 끝내지 않는다. 성경에 예언한 것을 다 행하고, 그 외에 현대에 필요한 역사를 다 행하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한다.
17. 사람이 수족이 멀쩡해도 신앙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하면 신앙의 장애인이다.

* 여기까지 오늘 잠언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자 주님의 신부인 우리는 어느 단계에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덟 단계>를 말씀해 주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생각을 싹 없애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의 생각으로 꽉 채워야 된다. 이 단계에서 주님을 부르고 찾아라!

두 번째,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께 집중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입으로 크게 부르고 간구해야 된다. 그래야 주님과 통한다.

세 번째, 자기가 하늘 앞에 고할 것을 고하며 성자 주님과 통하고 있다면, 그다음은 ‘응답받는 단계’이니 응답을 받아야 된다. 응답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마치 남녀가 사랑하면 사랑을 행하듯이 계속 성자 주님과 교통하면서 목적인 것을 행해야 된다. 말한 것은 행해야 이루어진다.

네 번째, 응답받은 것을 행한 후에는 더 깊은 단계로 이어져야 된다. 남
녀가 사랑했으면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고 행하듯
이, 성자 주님과도 그리해야 된다.

다섯 번째, 삼위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더 약속하고, 더 사랑을 굳건
하게 하며 영육으로 체질화하는 단계로 가야 된다. ‘사랑’으로 인해 정
이 붙고 일체 되는 것이다.

여섯 번째, 성자 주님과 같은 생각, 같은 행동,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
생각과 행실과 목적을 확고히 해야 된다. 이는 가정을 꾸리고 사는 단계
다.

일곱 번째, 삼위와 일체 되어 사랑을 완전하게 하고, 영원히 변치 않고
살아가는 ‘사랑 세계 단계’로 가야 된다.

- 그러나 사람들은 순간 일곱 단계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단계에서
끝나기도 하고, 일곱 단계 중의 한 곳에서 머물며 살고 있다. 마지막
여덟 번째 단계까지 가야 성자 주님과의 사랑이 완성된다.

여덟 번째, 남녀가 사랑의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랑에 빠지듯이, 성
자 주님과의 사랑의 생각이 많을수록 주님과 더욱 깊이 사랑에 빠지게 된
다. 매일 이 단계에서 살아야 된다.